

만고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리인 정기로 빛아낸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제934호



“제주대 곳곳 아름다운 벚꽃 절경 구경하세요” 4월을 맞이해 교내 벚나무가 꽃을 피워 제주대가 연분홍빛에 물들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은 벚꽃향을 맡으며 교정을 거닐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대 본관 앞, 제주대학로, 친환경농업연구소 앞.

김선혁 수습기자

4·3 알리기 도심 퍼레이드

대통령 추념식 참석 촉구

매년 4월의 시린 바람이 불 때면 누군가는 서글픈 기억에 가슴 아파한다. 어느덧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이 아픈 기억을 다 시금 되새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대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3월 21일, 벤처마루에서 울려 퍼진 제주대 학생들의 목소리다.

21일 오전 9시 제주대 사거리는 ‘4·3알리기 도심퍼레이드’를 위한 300여명의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제주4·3을 알리고 도민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주대 학생들이 발 벗고 길거리에 나섰다.

“제주 섬 구석구석 잊혀진 4월의 기적, 잠들지 못한 영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현수막을 들고서 거리에 나선 학생들은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걸으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주, 여전히 바람은 시리다’를 주제로 학업에 전념하던 학생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학업을 내려놓고 모여 뜻을 모았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뜻을 같이 하고자 걸음을 옮기는 주민들도 보였다.

3시간 간의 대장정 끝에 추모 행렬은 벤처마루에 이르렀고 참여자들의 열기 또한 더욱 고무됐다. 이윽고 한편에선 ‘제주4·3희생자추념식’ 대통령 참석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So아라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4·3알리기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국민 모두에게 제주4·3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며 이는 아픔을 간직해 온 유족들을 위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후 제주대 중앙운영회의 주도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추념식 대통령참석 촉구 서명운동이 열렸다.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추도하기 위한 사람들의 헌화와 분향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서명운동 또한 열기를 더해갔다.

여러 개의 목소리, 그러나 모두 한 뜻으로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말하고 있다. 4·3유족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노력, 그들의 이런 간절한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부찬우 기자

총학생회, ‘총장 업무추진비 논란’ 전면 대응기로

오늘 10시 총장과 추진비 의혹 관련 면담 예정

정보 공개 투명성과 폐쇄된 감사 구조 개선 요구

허항진 총장이 수천만원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대해 총학생회가 적극적 문제 해결에 나섰다.

‘So아라’ 총학생회는 1일 오전 10시 허항진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 재정위원회 설치시 엄격한 감사시스템 도입, 업무추진비에 제기된 의혹 해소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학생회장 직권으로 비상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했다.

이 사실은 3월 27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어느 대학생의 총장님 업무추진비 추적기’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보도됐다.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기성회비에서 지출된다. 2014년도 총장 업무추진비는 총 4300

만원이고 이 중 2700만원을 식비로 사용했다. 이 중에서 식사 한 번에 135만원을 지출한 내역도 확인됐다.

하지만 공개된 영수증에는 누구와 몇 명 이서 식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공휴일에도 수차례 고급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하기도 했다.

이는 업무추진비 사용시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때 상대방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휴일에는 공식 업무를 했다는 증빙자료 없이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300만원을 경조사비, 유공직원 격려

금, 도서 구입 등의 명목으로 현금 사용했다. 학교 측은 이 지출에 대해 누구에게 무엇을 썼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취재한 문준영 (언론홍보학과 4)씨는 자신이 낸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학교의 비공개 통보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여론이 총장을 비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폐쇄적인 감사 구조의 정상화다”라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총운영위원회·대의원총회 25일부터 이틀간 개최

올해 첫 중앙자치기구 회의

올해 상반기 중앙자치기구 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25일 ‘So아라’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6일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So아라’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는 총 98명 중 위임장 작성 10명 포함해 97명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행사 보조경비 분배 △공약

사항 이행 계획발표 △후생복지기금 사용 및 학생행사 보조경비 사용 등이 보고됐다.

또 △총학생회 사업일정 및 방향 △1~3월 결산안 및 상반기 예산안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회칙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안건은 모두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26일 대의원총회는 재직 대의원 총 200명 중 15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해 개최됐다. 하지만 출석인원들이 중간에 이

탈해 마지막 안건 처리 시에는 회의 도중에 50여 명 정도 빠져나가 90여 명만 남아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총학생회 회칙 중 총대의원회 관련 내용을 폐지하고 총대의원회 회칙을 제정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151명 중 141명이 찬성해 통과되었다.

또한 각 자치기구의 정책보고, 예결산안 보고 및 승인, 학생회비 납부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2면에 계속 전지민 기자

사령

김미래(경영학과 2)
임세환(경영학과 2)
김선혁(경영학과 1)
심소연(생물산업학부 1)
이소윤(생물학과 1)

수습기자에 임명함
이상 4월 1일자

제주대신문

작은 정성과 참여가 제주대학교의 저력을 크게 키웁니다

ARS(060)는 한통화에 3000원이 적립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학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금액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RS제대사랑 수신기금

발전기금에 관심은 있으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한 통화로도 기금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6 0 - 7 0 0 - 1 0 2 0

(재) 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RS(060-700-1020)은 한 통화 당 3,000원 금액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자동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 방법 : 전화정보교환서비스(ARS 060-700)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보이용료 및 수납대행료 납부

· 번호 : 060-700-1020(대학 신주소 제주대학로 102표기)

· 후원금 : 1통화당 3,000원

· 안내멘트 :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소리가 난 후 부터는 전화사용료 외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후원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시오. 삐~~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설

야신(野神) 님은 교수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야구감독과 대학교수는 님은 점이 많다. 야구에서의 선수나 대학에서의 학생에게 감독이나 교수의 기대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야구는 선수가 좋으면 경기에서 승리한다. 대학교 학생이 우수하면 그만큼 대학의 가치가 높아진다. 차이가 있다면, 야구감독에게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모든 것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학교수는 목표가 교육인지 연구인지 산학협력인지 봉사인지 그 모두가 목표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세계들을 얘기가 많았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로 유배를 왔을 때, 역관이었던 제자 이상적이 중국의 서책을 줬다. 스승은 그 보답으로 『세한도』를 선물했다. 이상적은 이 그림을 들고 청나라에 가서 문인들의 소감을 받아왔고 김정희를 중국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산 정약용은 20여년 간의 유배생활에서 만난 제자 황상이 “너무 우둔하고 융통성이 없는 저도 공부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민첩하게 외우거나 글을 잘 짓거나 빨리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것이다”라며 『삼근계(三勤戒)』를 지어주었다.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에는 제자 안연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를 공자와 안연이라고 한다.

야신(野神)이라고 부르는 김성근 감독은 절대로 선수를 버리지 않는 감독으로 소문 나 있다. 선수의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일단 장점을 찾아내면 그 장점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김성근 감독은 선수를 견(見), 관(觀), 진(診)으로 본다고 한다. 선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환자를 진찰할 때처럼 선수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감춰진 것을 찾아낸다. 김 감독은 생각이 부족한 선수를 조련하는데 힘을 쏟았다.

김 감독이 맡았던 야구팀이 항상 스타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대다수가 평범한 선수였다. 감독이 발굴하면 언제든 꽃 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신이라는 별명을 듣는다. 대학교수에게 학생은 야구감독의 선수와 같다. 제주대학의 학생들도 야구선수처럼 누구에게나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장점을 많이 가진 제자들이다. 아직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대학에는 야신 님은 젊은 교수들이 많다. 입학할 때 평범했던 학생들의 감춰진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수들도 많다. 밤새 불 밝히며 연구실에서 제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교수도 더 많다. 마치 야구감독이 선수를 훈련하듯이, 옛 스승이 제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사람을 묵묵히 키우는 교수들도 많다. 누군가에게는 스승이고 누군가에게는 제자라는 생각을 마음 속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여러분, 정신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그 뿌리가 깊어 여러 영역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신건강에 이상을 느낀다 해도 병원을 찾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은 현실,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폭력적일 것이라는 생각,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사회에서 정신질환 발생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과중심사회의 산물인 불안과 우울이 상승세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지 오래다. 정신질환이 처음 발생하는 시기가 청소년 및 청년기인 경우가 60~70%를 넘는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대학이라는 공간은 정신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정신질환자 수가 5년 전에 비해 35%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얼마 전 국내 모 대학에서는 학생이 수업 도중 뛰쳐나가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신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교수나 동료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부 대학에서는 24시간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해당문제를 처리

하는 등 연계사업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예방증진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대학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현실은 어떨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대학은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구성원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건강증진센터가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고, 의사진료일이 아닌 날은 상담이 가능하지 않다. 기존의 학생생활연구소는 취업전략본부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학생상담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의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그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다.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도가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씁쓸한 일이다.

대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 등 청년들에게 부과되는 스트레스들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캠퍼스 내에 있는 상담센터 혹은 건강증진센터이어야 한다. 1회에 10만원 하는 비싼 사설상담소를 가기에 부담이 되고 정신과 병원을 찾자니 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4월 4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전국 곳곳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학생 중앙자치기구 회의, 주요 쟁점 정리

예산 관련 질문 해도

◇“가예산이어서 확실치 않습니다”

각 자치기구의 예·결산 보고 후 구성원들의 질문이 유난히 많았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총대의원회 예산안 중 ‘복사용지 및 외부손님 음료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가예산이어서 넉넉히 책정했다”고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다. 또 대의원회가 주최하는 ‘만사내집’의 과다 예산 책정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기획안은 총대의원실에 있는데 공급하시면 찾아오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런 예산안 질문에 대한 명확하지 않

은 답변은 구성원들을 답답하게 했다. 한 참여자는 “이렇 거면 왜 예산안을 보고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회칙 제정 및 개정

이번 자치기구 회의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회칙이 재개됐다. 기존의 총학생회 회칙에 종속된 총대의원회 회칙을 내용 변경없이 분리시켜 단독 제정했다.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에서는 4개 영역이 폐지, 3개 영역이 변경, 1개 영역이 추가됐다. 총대의원회 자치내규에 따라 제3장 대의원총회의 일부와 제8장 단과대학대의원회, 제12장 학년대표 등이 총학생회 회칙에서 삭제됐다.

제13장 특별기구 중 한라산편집위

원회와 갈래연합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대책위원회와 도서관자치위원회를 신설 항목에 추가했다. 원일권(영어영문학과 4) 학생회장은 “한라산편집위원회는 학내 교지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운영의 불필요함과 효율에 의해 폐지했고 갈래연합은 동아리연합회 산하에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장의 권한대행을 총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1명이라고 명시된 것을 부총학생회장이 권한대행하도록 명문화했다. 각 중앙자치기구의 회장·의장으로 구성되던 운영위원회에 부회장·부의장도 추가했다. 정재영(건축공학과 4) 총대의장은 “총여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는

자체 규정이 있는데 총대의원회만 아직 총학생회에 종속돼 있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새로 분리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학생회비 납부를 역대 최저 기록

2015년 1학기에는 전체 재학생 1만330명 중 5529명만이 학생회비를 납부해 학생회비 납부율은 53.8%에 그쳤다. 이는 2014년 1학기의 59.2%에 이어 또 최저치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저조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5년 1학기 학생회비 약 3870만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학생회·총여학생회·총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졸업준비위원회와 각 단과대에 분배된다. 1면에 계속 전지민 기자

학생회 지원금 감소… 兩 캠퍼스 학생회비 소폭 인상

사라캠퍼스 5000원·아라캠퍼스 1000원 상승

행사 유지 및 발전 위해 회비 인상 불가피해

사라캠퍼스와 아라캠퍼스 학생회비가 인상됐다.

사라캠퍼스의 학생회비가 기존의 한 학기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5000원 인상됐다. 3월 18일 개강 총회에서 학생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00표, 반대 58표, 무효 2표로 인상이 확정됐다.

작년 800만원이었던 학생회 지원금이 올해 700만원으로 급감했다. 기

성회 파산으로 인해 기성회에서 지급해야 할 이월금도 미지급됐다. 그로 인해 이월금으로 진행되던 새터 행사들은 올해 예산을 가져와 써야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또 작년 세월호 문제로 진행하지 않았던 어린이날 행사가 올해는 다시 진행돼 지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태양(학생회장·초등과학교육전

공 3)씨는 “학생회와 운영위원회 입장에서 지금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선 작년 동일한 규모로 행사를 진행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현재 상황에선 최악의 경우 행사를 없애야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사를 없애거나 규모를 축소하기보단 지금의 행사 규모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학생회비 인상에 대해 학우들께 어떻게 어렵게 제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라캠퍼스의 학생회비도 기존의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

아열대농생명융복합사업단, 특강 개최

농산업분야 접근 유도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동선 응용생명공학전공 교수)은 3월 27일 친환경농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신젠타코리아 대표 김용환 박사를 초청해 참여학과 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I) 전공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 주제는 ‘세계 농산업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농학도의 꿈’이다.

김 박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혁신의 필요성과 젊은 인재들이 꿈을 갖고 농산업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

과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제주대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양성사업단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특성과 분야인 아열대 생물산업분야와 제주지역 전략산업인 청정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신젠타코리아 대표 김용환 박사를 초청해 참여학과 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

대상학과는 식물자원환경전공, 원예환경전공, 응용생명공학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산업응용경제학과, 식품생명공학과다.

사업단은 학과지원을 통해 대학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백승규 기자

교육대학 벅슨과 협약

교육대학(부총장 겸 학장 정광중 초등교육과)과 벅슨컴퓨터박물관(관장 최윤아)은 3월 27일 교육대학에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박물관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지역방언은 우리말의 ‘버팀목’

인터뷰 배영한(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임 국어문화원장

▶취임소감은.

제주대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됐다. 그런데 국어문화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크다. 강영봉 전임 원장님이 문화원 운영을 잘 이끌어 왔다. 그 분이 잘 일귀운 터를 바탕으로 국어문화원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어문화원은 어떤 일을 하나.

2005년, 정부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국어기본법’을 제정했다. 법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국어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도맡아 하던 곳이 ‘국어상담소’였다. 또한 상담뿐만 아니라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의미로 통합된 것이 ‘국어문화원’이다. 우리 대학교 2006년 ‘국어상담소’로 시작한 2008년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육지와 다른 독특한 제주방언이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국어생활과 지역 방언 보존, 연구라는 중요한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상담과 교육, 그리고 연구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담’에는 글쓰기나 한글맞춤법에 관한 상담이 진행 중이다. ‘교육’ 부분은 수강생이 신

청을 하면 국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찾아가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제주도 방언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시리즈로 자료집이 발간된다. 그리고 제주방언 보존을 위한 ‘제주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이 설립된 지 1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년간 전임 원장이신 강영봉 교수님이 닦아 놓은 터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절멸해가는 제주방언의 보존 방법과 후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대표적인 행사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우리말겨루기 대회 제주 예선’,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학교 운영’, ‘성인 문해 백일장’,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학생들

의 참여 비율이 적다.

▶대학생들이 외국어에만 집중하고 국어를 등한시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말을 종종 학생들에게 전한다. 동북 아시아인들은 피부색이 같고 생김새가 비슷해 서로의 국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징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지 아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어를 잊는 순간 민족의 동질감은 사라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제주도에는 ‘제주방언’이라고 하는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 있다. 이것은 필시 제주도만이 아닌 한겨레로서의 정표다. 각 지역의 방언을 합친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제주방언은 한국어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다. 현재 제주도의 젊은 세대는 제주어를 많이 쓰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제주방언이 가까운 미래에는 거의 소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민족의 유산인 방언을 여러분이 아끼고 거리낌 없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으면 한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주도 방언을 지키고 보존했으면 좋겠다. 임세환 수습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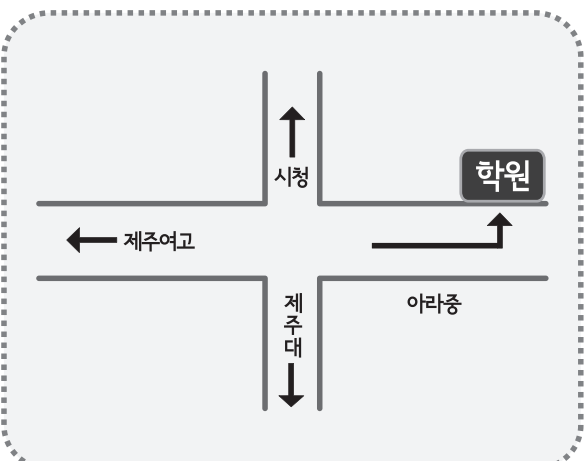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5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이하여,

제35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17: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처 : 신문방송사 행정실 Tel. 754-2282

5. 발표 : 제주대신문 939호(2015년 6월 3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기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이 미치는 영향 논의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제주대만의 평가 도입 추진

상반기 교수회 정기총회가 3월 27일 오후 2시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재직 교수 570명 중 361명이 출석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교수는 318명이며, 실제 총회에 참가한 교수는 43명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 △201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보고 △신임 감사 선출 △성과급 연봉제 폐지 및 변경 제도 설명 △국립대 재정회계법 및 관련 법 설명 △학장임용방식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성과급 연봉제는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다. 연봉제에 포함된 누진제 방식이 사라짐에 따라 연봉 산출에서 기본 연봉제와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전환됐다. 성과상여금은 연봉과 별도로 SABC등



교수회가 올해 첫 정기총회를 3월 27일 오후 2시 국제교류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급제를 통해 차등 지급된다. 이어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이 교수들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 이 법에 따라 기존에 교수가 받던 각종 수당을 총장이 교육·연구비용으로 대체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설되는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상당한 영향력

을 행사한다. 이에 김철수(전산통계학과) 교수회장은 “교육·연구비 지급 선정 시 SABC등급제와 다른 제주대만의 자체적 평가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항후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학교 측과 협의해 교수가 위원회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영령이여, 이제는 편히 쉬소서” 학생들은 3월 27일 So이라 총학생회가 주최한 ‘4·3 유적지 순례’의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4·3 평화공원에서 희생자들의 비석에 영복을 기리기 위한 새하얀 조화를 꽃고 있다. 백승규 기자

RIS사업단 오는 6일부터 5일간 제주조릿대 차 무료 제공

고전문헌에 뛰어난 약재로 기록 수익금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

제주조릿대 RIS사업단(단장 김세제 생물학과 교수)는 조릿대 유통 전문기업 ‘헬스넷’과 함께 오는 6일부터 5일간 건강증진센터와 헬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주조릿대 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주조릿대는 한라산 생물권보전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제주의 고유식물이다. 동의보감·본초강목·신농본초경 등 고전문헌에 따르면 △당뇨병 △고혈압 △위염 △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 등 뛰어난 약재로 기록



제주조릿대 차는 국제유기농인증 마크를 수여 받았다.

돼 있다. ‘제주조릿대 차’는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인증과 국제유기농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헬스넷’은 ‘제주조릿대 차’를 판매해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을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2학기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제주조릿대 RIS사업단에서는 조릿대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체지방·콜레스테롤 개선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조릿대에 대한 다양한 효능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규 기자

4대 자치기구, 과거와 달리 통합 출범식 진행

3월 17일부터 이틀간 운영 일부 학생 자축행사 지적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열린 4대 자치기구 통합출범식이 3월 18일 막을 내렸다. 이번 출범식은 과거와는 다르게 열렸다. 4대 자치기구 △‘So아라’ 총학생회(회장 원일근 영어영문학과 4), △‘소공녀’ 총여학생회(회장 홍은혜 전자공학과 4), △‘품격’ 총대위원회(의장 정재영 건축공학과 4), △‘합박웃음’ 동아리연합회(회장 문경록 수학과 4)는 출범식을 함께 개최했다. 행사는 학생회관에서 이틀간 진행됐다. 17일 정문에서는 출범식에 앞서 4대 자치기구 회장단들이 등굣길 학생들에게 떡, 달력 등을 나눠주며 행사를 홍보했다. 오전에는 ‘소공녀’ 총여학생회와 ‘합박웃음’ 동아리연합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소공



녀’는 위안부 1억인 서명운동,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합박웃음’은 동아리 부스활동과 동아리 공연을 선보였다. 18일에는 ‘So아라’ 총학생회와 ‘품격’ 총대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홍보부스를 설치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음식코너, 포토존 등의 행사를 마련했다. 오후부터 4대 자치기구 통합공연과 단과대학별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양현승(정치외교학과 1)씨는 “가지각색의 행사와 볼거리가 많아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전행사와 달리 본행사인 출범식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자축행사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단과대 학생회 임원은 “출범식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간부에 비해 일반 학생들의 참석률이 압도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지훈(에너지공학과 4) 부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본 행사인 출범식에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행사를 운영하면서 4대 자치기구 임원들이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뇌와 신경과학의 이해’ 공개강좌 열려

3월 21일 의전원에서 개최 ‘2015 세계 뇌 주간’ 기념해

수의과학연구소와 의과학연구소는 3월 21일 오후 1시 30분 의학전문대학원 1호관 강당에서 ‘2015 세계 뇌 주간’을 기념해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뇌와 신경과학의 이해’를 주제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좌는 △정성철(의학과) 교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 뇌’, △박주민(의학과) 교수의 ‘뇌의 정보처리 기능’, △신태균(수의학과) 교수의 ‘신경계와 면역계’, △은수용(의학과) 교수의 ‘신경전달물질로 본 세상’ 등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이영제(수의학과)

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뇌 과학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강좌를 청강한 김정현(대기고 2)군은 “꿈이 외과의사라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왔다”며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뇌에 관해 자세히 배웠다”고 말했다. 김미래 수습기자



수강생들이 ‘뇌와 신경과학의 이해’의 주제로 열린 강좌를 청강하고 있다.

GTU사업단 ‘우수’ 등급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사업단(단장 강동식 과학교육과 교수)은 교육부 지원으로 수행 중인 GTU 지원사업 1단계 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사범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교·사대 56개교 중 4개 대학을 선정해 총 3단계 12년간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평가 결과에서 ‘우수’를 받아 계속지원이 확정됐다. 강동식 단장은 “전국 공모 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 우리 대학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GTU사업단은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강화와 글로벌 교원 육성이라는 목표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건 기자

체육학부 11명 학생들이, 전국수영대회에서 뛰어난 성적 거둬

3월 20일부터 5일간 개최 금메달 12개·은메달 7개 차지

제10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 참가한 체육학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3월 20일부터 5일간 제주 실내수영장에서 열렸다. 참가한 11명의 학생들은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7개를 획득했다. 경영종목에서는 여학생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임진희(체육학부 3)씨는 평영 100M, 200M 1위 △이주영(체육학부 3)씨는 자유형 800M 1위, 자유형 400M 2위, 계영 200M 2위, 계영 400M 2위 등을 기록했다. 남자대학부 다이빙종목에서 △홍정석



박수련
체육학부 1

자유형 50M 1위, 접영 50M 2위, 계영 400M 1위, 계영 800M 2위, 혼계영 400M 2위 등을 기록했다. 남자대학부 다이빙종목에서 △홍정석

(체육학부 2)씨는 플랫폼다이빙 1위, 싱크로다이빙 10M 1위 △이준홍(체육학부 4)씨는 스프링보드1M 2위 △김재훈(체육학부 1)씨는 스프링보드 3M 2위, 싱크로다이빙 3M 1위 △조관학(체육학부 4)씨는 싱크로다이빙 3M 1위를 기록했다. 여자대학부 다이빙종목에서 박효진(체육학부 3)씨가 플랫폼다이빙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박수련(체육학부 1)씨는 대회 여자대학부 자유형 200m와 400m, 계영 400m에서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이 주관했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인도네시아 국제바탐대 교류 협정 맺어

제주대(총장 허향진)는 인도네시아 국제바탐대학교(총장 한도코 카잔토로)와 3월 26일 총장실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교직원 교류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공동 세미나 △공동 간행물 발간 등 학술과 문화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학생 교류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으로 지정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연

간 5명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자격요건은 추후 공지된다. 교류학생은 우리대학 등록금을 납부한다면 현지학교의 수업료·등록비·입학비 등 기타 비용은 면제된다. 한편 국제바탐대학교는 학사 7개, 석사 2개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과정은 국가인증위원회에 의해 인증을 받았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와 국제바탐대학교가 3월 26일 총장실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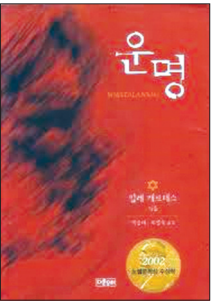
권하고 싶은 책

홀로코스트에 대한 글쓰기의 이유

운명 / 임레 케르테스 지음

홀로코스트 생존 작가였던 프리모 레비(1919~1987)는 홀로코스트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인 「이것이 인간인가」를 남겼지만 모순되게도 홀로코스트의 재현 불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레비의 말에 의하면 ‘생존자들은 진실 되게 증언하지 않는다. 생존자들은 가짜 증언들이다. 역사의 증언들은 가스실에서 사라져간 자들이어야 한다.’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전대미문의 이 악몽에 대한 재현 불가능성은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 생존 작가들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헝가리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임레케르테스(1929~)이

다. 목재상을 하던 유대인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성장한 케르테스는 학창시절인 1944년 15세의 나이로 강제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나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지 나흘 만에 부헨발트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가 그곳에서 다시 짜이츠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짜이츠 수용소에서 1년간 지내다 전쟁이 끝나자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 부다페스트로 돌아왔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 악몽을 케르테스는 자전소설 「운명」에서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죄르지 코비세 역시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는 15세의 유대계 헝가리 소년이다. 아버지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역시 출근길에 영문도 모른 채 아우슈비츠로 끌려간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운이 좋게 나흘째 되는 날 부헨발트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나흘 뒤에 짜이츠 수용소로 이송된다. 이곳에서 병이 들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부헨발트 수용소 병동으로 이송되어 생활하던 중 전쟁이 끝나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즉, 이 소설은 죄르지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생활하다 1년 후 다시 부다페스트로 돌아올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학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히틀러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만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래 홀로코스트란 구약성서 시대 유대인들이 짐승을 통째로

구워 하느님에게 바친 제사인 번제를 의미하였다. 그 후 종교적인 의미를 벗어나 보통명사로 사용되면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량학살을 지칭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접어들어 엘리 위젤을 필두로 한 우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이 용어를 쓰면서 유대인 대학살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아도르노는 이미 1951년에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적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나치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만행을 예술로 재현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일일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200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엘프리데 엘리넥(1949~)은 아도르노의 선언에 빗대어 아우슈비츠 이후 아우슈비츠를 언급하지 않는 문학은 문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199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쿤터 그라스(1927~)는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만행은 글쓰기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케르테스 역시 노

벨상 수상 연설문에서 홀로코스트를 그리지 않은 작품은 진정한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케르테스에게 중요한 것은 홀로코스트의 “책임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타의 홀로코스트 문학과 마찬가지로 「운명」 역시 나치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운명」은 참상에 대한 고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밝히는 증언인 동시에 홀로코스트의 참상에 대해 침묵으로 수수방관했던 인류는 과연 홀로코스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이나 영화는 수없이 많다. 2001년도에 발생한 911테러가 만들어낸 가공할 공포와 21세기 초부터 유럽을 배회한 신나치라는 망령 때문인지 홀로코스트 문학은 21세

기를 접어들자마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2002년 칸 영화제에서는 유대인 파아니스트의 삶을 다룬 〈피아니스트〉가 그랑프리상을 수상하고, 스웨덴 한림원은 케르테스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하였다. “아우슈비츠로부터 온 정신의 매개체”임을 자처하는 케르테스는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주제에 천착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가 이처럼 홀로코스트에 천착하는 이유를 노벨상 수상 연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 작품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가 남긴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오늘날의 살아 남는 생명력과 창조력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러므로 아우슈비츠를 생각할 때, 나는 역사적이게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조현천 독일학과 교수

제주대신문의 취업강령

‘탈스펙화’ 채용시장의 변화

스펙위주의 채용방식에서 직무중심으로...

<3> 정부의 취업정책과 기업의 취업경향 분석

지난 기획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대학 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의 취업정책과 최근 취업 경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최근 취업 경향을 보면 한 가지 표현이 떠오른다. 바로 ‘보랏빛 소’다. 고속도로를 따라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소 떼 수백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정도로 신기한 광경일 것이다. 그런데 20분 후, 못 보던 소들이 나타났다. 조금 전에 본 것들이 이제는 평범해 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보랏빛 소’다.

지금에 이르러서 기업의 인재상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기존의 스펙경쟁에서 이제 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소통 등을 중시하고 있다. 더 이상 스펙위주의 취업 준비가 경쟁력을 얻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누런 소에서 ‘보랏빛 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정부의 정책 변화와 최근 취업 경향을 통해 알아 보자.

◇ ‘스펙초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부상

청년 실업률 11.1%(2015년 2월 통계청 발표). 갑수목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실업에 대한 걱정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스펙경쟁 해소와 스펙초월,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보급 등을 통해 스펙을 초월한 채용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스펙 초월’ 채용제도가 적극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학점, 어학성적 등 개량된 항목과 점수를 배제, 스펙 쌓기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130개 공공기관부터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30개 공공기관이 3000명 가량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능력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표준화·체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금융·보험, 경영·회계·사무 등 산업별로 24개 대분류, 77개 중분류, 227개 소분류, 857개의 세분류로 나뉘고, 직무를 의미하는 세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식·기술 등을 의미하는 능력 단위들을 정리해 놓고 있다. 세분류 857개 가운데 능력 단위까지 개발된 경우는 현재 797개고 나머지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직무 능력을 수준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최하 등급은 1수준, 최고 등급은 8수준이다. 통상 2수준을 고등학생, 4~5수준을 학사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대기업들도 잇따라 스펙을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채용시장의 변화, 직무 적합성 평가 도입

올해 대기업 채용시장의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발견됐다. 2015년 하반기부터 삼성에서 ‘직무 적합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의 채용전형에 대폭 수정할 것으로 발표했다. 삼성에서 시작하는 변화가기에 취업시장 전체의 판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 시험위주의 획일적 채용방식에서 직군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과 토론형 창의성 면접 등을 도입,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한 다.

LG도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직무중심의 채용방식으로 변화했다. 수상경력과 어학연수, 인턴, 봉사활동 등의 스펙란이 사라지고 대신 자기소개서와 코딩테스트, 영어면접, 인턴십 등 직무별 특화 전형으로 구직자를 평가한다. 다수의 다른 기업들도 이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채용전형이 기존의 형태에서 탈피, 고도화된 원인으로는 지속된 불경기로 인한 채용인원 감소로 보인다. 이에 따른 지원자의 스펙이 상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취업 트레이닝이 성행하면서 현 채용시스템의 변별력이

그룹	특징
삼성	상반기가 마지막 SSAT. 하반기 직무적합성평가(서류)
현대차	전공, 학점, 영어성적 제한 없음 인문학 역사 평가
기아차	직무별 맞춤형 채용 프로세스
SK	어학, 경력, 활동 등 기재 폐지 열린채용 '바이킹' 정원 2배로 확대
LG	외모, 배경, 활동경력 등 배제 한국사과 한자능력 평가
현대중공업	직무/직업성격 인적성검사(HATCH) 전공, 학점, 활동 등 스펙 평가
포스코	학교생활 내용 평가, 직무평가 강화
한화	인적성검사 없음. 직무관련 스펙만 평가
GS	조직가치부합도 검사, 직무능력검사, 한국사능력 등 검사.

주요 그룹별 2015년도 채용 특징이다. 직무 적합성 평가도입과 인문학 등이 눈길을 끈다. 기존 스펙 위주의 채용에서의 ‘탈’ 화를 엿볼 수 있다.

감소함에 따른 기업의 대책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은 기존의 채용 방식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 스펙 좋고 어학능력 있는, 면접시 잘 말하는 사람을 뽑았지만 막상 입사 후 직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런 비효율을 줄이려는 기업의 새로운 채용전략이라는 평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실적의 평가가 아닌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취업시장에 유리한 판도로 변화로 볼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채용의 열쇠로 보인다.

또 다른 채용 방식의 변화는 바로 ‘인문학’의 도입이다. 최근 대기업 취업시장에서

인문학 문제가 잇따라 출제되고 있다. 삼성, LG, SK, 포스코 등이 지난해 인적성검사에 인문학 역사 문제를 출제했다. 지난 2013년 하반기 현대자동차의 역사 에세이를 시작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삼성과 SK가, 하반기에는 LG가 인적성 검사에 한국사 영역을 추가했다. 인문학적 소양이 국내 주요 그룹의 신입사원 선발 시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인문학의 도입은 인문학의 핵심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인 상상력과 혁신 등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문학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의 채용방식에서도 인문학이 하나의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이런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평이다.

부찬우 기자

취업선배와의 인터뷰

학내 취업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라

▶ 어떻게 취업준비를 하셨는지

특이하게 취업 준비에 있어서 단순히 공부보다는 활동적인 것을 많이 했다. 주로 학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다.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는 것이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가 통과되면 직무적성검사를 보고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게 된다.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스킬도 익히고 직무적성검사 준비방법과 면접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또 면접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할지’와 복장이나 얼굴 등 스킬적인 요소도 교육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취업을 준비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보단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파악도 많이 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취업프로그램은

취업캠프, 취업 서포터즈, 취업동아리, 인적성검사,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중 취업 서포터즈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3학년 2학기, 늦은 시기에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활력을 찾고 싶은 맘에 시작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접하게 됐다. 단순히 취업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많은 경험이었다.

▶ 취업프로그램이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준비하기보다는 학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확실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주변을 보면 소문에 좌지우지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 프로그램을 만나보면 객관적인, 맞춤형 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취업캠프의 경우 면접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 실제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실무진들과 면접을 보며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맞는 면접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잘 알 수 있다. 주변 친구들과 준비할 때는 자신이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기 어렵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어떤



강형묵(사학과 07학번) SK핀크스 HR/경영지원팀

점에 강한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점을 어떤 식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이 취업이 꿈이나 목표가 아닌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취업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살기 위한 과정의 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것이다. 지금 친구들을 보면 ‘취업 해야겠다, 공무원 준비해야겠다’ 등 맹목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취업에 너무 맹목적이자 말고 본인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잘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 선배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는 하되 본인이 그 중 무엇과 맞는지 이해하고 판단해서 자신만의 인생의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 학생들만의 색깔을 찾아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자신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단순히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위한 발판이 학교에 충분하다. 다른 학교를 가보면 우리학교만큼 학내 프로그램이 잘 정립된 곳이 많지 않다. 학내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

부찬우 기자

함박웃음 피어나는 동아리탐방 3

로타랙트

정기·연합 봉사를 통한 다양한 경험

‘로타랙트’는 교양봉사동아리에 속해 있는 봉사동아리다. ‘로타랙트’는 Rotary Action의 합성어로 18~30세까지 남녀 청소년으로 구성된 연합봉사 동아리이다. 또한 ‘로타리클럽’이 후원하는 전 세계 18만 명을 회원으로 두는 단체이다.

제주대 ‘로타랙트’는 창립 이후 현재 33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들은 33년 동안 도내의 각종 봉사활동과 캠페인을 맡아서 진행했다. 또한 현재는 여성장애우가 있는 ‘작은 예수님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10년째 이어지는 정기봉사활동

‘로타랙트’는 도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다. 장애인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봉사활동과 스태프 역할을 자처해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로타랙트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활동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작은 예수님의 집’ 봉사이다. ‘작은 예수님의 집’은 20~30대 여성장애우들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들은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오후 1시에 모인 이들은 4시간씩 여성장애우들을 위해 봉사를 진행한다. 봉사를 하기 전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는다. 그 후 분담해서 활동을 시작한다. 청소도 하고 장애인들과 산책도 다니고 답소를 나누는 등 이들은 항상 웃음지으며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다. 또한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매순간순간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봉사를 할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등 많은 것을 느끼고 간다”고 말한다.



로타랙트 학생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봉사를 하고 있다.

김대우(토목공학과 2)회장은 “처음 봉사를 할 때는 ‘내가 이런 봉사를 한다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등 많은 생각과 편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봉사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갖고 있던 편견이나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땐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합활동

‘로타랙트’는 단독 봉사 외에도 많은 연합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탐라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장애인 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중이다. 또한 제주한라대학교 로타랙트와 연계해 연합봉사를 준비하는 등 다른 동아리들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1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모임에서 ‘로타랙트’ 학생들은 외친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를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네 가지 다짐을 통해 학생들은 마음속에 다짐한다.

김대우 회장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봤다고 생각한다”며 “봉사를 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로타랙트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편견 없는 봉사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로타랙트’. 수동적인 봉사가 아닌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그들의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김해건 기자

소나이즈

야생야사(野生野死) 외인구단

류현진, 추신수 등 해외와 선수들의 활약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야구열풍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즐기고 사랑하고 있다. 우리학교에도 야구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야구 동아리가 있다. 바로 ‘소나이즈’이다.

‘소나이즈’는 체육분과동아리에 속해 있는 야구 동아리이다. 사나이의 사투리인 소나리와 S가 합쳐져 ‘소나이즈’라는 말이 탄생했다. 2007년에 만들어진 ‘소나이즈’의 창단멤버는 육지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육지에서 야구를 즐기다온 학생들이 제주에 야구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걸 알고 동아리를 만들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학교 제2운동장에서 연습을 한다. 타격, 수비, 공격 등 실전에 대비해 훈련을 한다. 많은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연습을 실천처럼 긴장된 표정으로 임한다. 김종섭(토목공학과 4)회장은 “야구는 한순간에 다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상을 경계하고 매순간마다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하고 집중하다 보면 팀원들을 믿게 되고 서로 신뢰가 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함께 야구를 보며 간접적인 야구경험을 한다.

◇리그 참여 그리고 고비의 벽

‘소나이즈’는 ‘서귀포시 연합회 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19개의 사회인 팀으로 구성된 대회에서 ‘소나이즈’는 이 대회에서 준우승, 3위 등을 잇달아 기록하며 우수한 성

적을 거두고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학생들은 던지고, 치고, 달리며 자신들의 열정과 맘을 쏟아낸다.

학생들은 리그 외에 열리는 토너먼트 대회에도 참가해 자신들의 실력을 선보인다. 연습도 많이 하고 리그도 참여하지만 이들에게 힘든 점은 존재했다.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 방학 중에도 진행되는 리그의 진행 문제였다. 육지에 사는 학생들이 방학 중 집에 올라가면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해 운영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하나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돈이 많이드는 스포츠? 그래도 괜찮다

많은 학생들은 ‘소나이즈’에 대해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다. 학생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나이즈’ 학생들은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사실에 인정한다”며 “하지만 야구를 하고 싶다는 열정하나로 가입했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김종섭 회장은 “소나이즈는 다른 동아리와 다르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주거나 흔히 말하는 스펙이 쌓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믿음이 중요시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큰 매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구의 매력을 이렇게 말한다. ‘끝까지 희망을 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스포츠라고 말이다.

김해건 기자



강창학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소나이즈 학생들.

답론通

답론통지기 <1> 최광용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교수

현재 우리 사회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거나 한 쪽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갈등을 낳고 상호 이해하기를 포기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학술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양론의 핵심을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답론을 한데 엮어 건전한 토론의 장의 마련을 위해 기획했다. ‘답론통’ 제목 사용을 허락한 김종배 시사평론가에 감사를 표합니다. <편집자주>

◇지구온난화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진실이나 거짓 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과학에는 100%라는 것이 없고 단 1%의 가능성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자연적 기후변화가 있고 인위적으로 생기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의 많은 데이터가 온실기체에 의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기후의 정의는.

“크게 기상과 기후가 있습니다. 기상은 특정 날짜·장소의 대기의 순간적인 일시적 상태. 즉, 날씨입니다. 반면 기후는 장기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후학이 지리학에 속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지리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기후 또한 지역 대기의 보편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리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위 지방에서는 싱겁게, 아래 지방에서는 짜게 김치를 먹는 것도 기후와 관련이 있다.> 예. 거기에도 기후의 영향이 많이 반영이 됐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래 지방은 김치가 많이 설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오래 먹기위해 염장을 많이 해 김치를 덜 상하게 하죠” ◇혹자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지구온난화가 존재하는가’ 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그 사람은 기후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후란 장기적인 일반적 추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짧은 몇 년의 기후를 가지고 그게 온난화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기후변화도 있지만 기후변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후변동(climate variability)은 올해와 내년의 기후가 연도마다 다르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변동성 시계열 데이터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떨림을 기후변동이라 한다면, 기후변화는 데이터에서 1차 추세선의 방향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단기간의 특정연도의 데이터가 증가한다는 추세가 있다해도 어떤 해는 값이 추세선에 비해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동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기후시스템에서 A라는 현상이 증가 부분에 있어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쏙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여러 피드백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현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양의 피드백도 있지만, 현상을 약화시키는 음의 피드백이 있어요” ◇기온 상승은 1500년 주기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류는 약 만 년 전부터 간빙기에 살고 있어요. 그 간빙기를 홀로세(Holocene)라고 합니다. 2만 년 전 최후 빙기 때에 비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거짓과 함정

사회적 회복력 강화가 CO₂ 배출량 감축보다 중요하다



이토 키미노리
요코하마 대학교
환경정보학과 교수

◇IPCC AR5의 결론은 옳은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의 결론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의 기온과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처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검토자로서 볼 때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보고서에 존재하는 과학적 거짓과 심리적 함정을 찾아야 한다. ‘거짓’과 ‘함정’이라는 단어는 저자의 책 ‘지구온난화에 대한 거짓과 함정’ 제목에도 사용된 말인데, 과학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여기에서 ‘과학적 거짓’이란 어떤 현상을 이치에 맞지 않게 설명하여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태도를 의미한다. ‘심리적 함정’이란 사고나 감정의 패턴을 의미하며, 이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의 온도 상승,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라는걸 기억해야 한다. IPCC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그 가설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루지더라도 이것은 증빙

이 필요한 가설일 뿐이다. 또 다른 중요한 가설은 자연적 변화의 영향(특히, 지역적·국지적 범위에서)과 인류발생적 요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사실, 최근의 연구들은 이산화탄소 가설보다는 두 번째 가설을 더 선호한다. [표1]은 이런 상황을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가설의 단순한 시각과 자연적·인류발생적 요소가 포함된 현실적인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기온 데이터의 미스터리

20세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주장은 [표2]의 A와 같은 곡선, 일명 하키스틱그래프(HS)에 근거한다. 이 HS 곡선은 이미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잘못된 데이터와 부적절한 통계분석의 결과였다. 타당한 기온변화의 예는 [표2]의 곡선B이다. 곡선 B는 현재의 기온이 1,000년전의 기온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명 ‘중세의 따뜻한 주기’) 온도가 없던 과거에는 기온을 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적 기구를 이용한 측정 또한 큰 오류를 갖고 있다. 부분적인 원인은 기온을 상승시키는 경향을 갖는 도시화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콘도 준세이 박사(近瀬正一 일본, 도호쿠대학 명예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일본의 기온은 0.7° C 상승했다. 이 수치는 일본기상청이 주장하는 1.5° C의 절반도 안 된다. 그는 실제로 일본에 있는 온도측정 장소를 모두 가보았는데, 그 장소들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는 온도 측정 장소 중 한군데를 5백만엔을 주고 그 장소가 더 이상 훼손되는걸 막기 위해 샀다.

간빙기 때는 전 지구 평균으로 약 4도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제 약 2만 년 전 빙하기에서 홀로세로 접어들면서 농업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때는 약 1만년 동안 4도가 상승한 거죠. 그것을 100년으로 환산한다면 0.04도가 상승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최근에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관측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0.74도가 상승했다고 하죠. 그러면 100년 당 상승률이 15배 이상입니다. 과거에 비해 급격히 기온이 상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승률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관측장비가 오래된 곳의 특징이 도시화가 된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국지적으로 토지피복이 변하다 보니까 기온이 평균 2배 더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은 국지적인 도시화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어떤 자연적인 전지구 기후변화에 의한 증가분과 도시화 효과에 의한 증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떻게 변했나.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의 경우 기온이 하나도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름철의 많은 강수량이예요. 90년대 중반에서부터 호우성 강수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일 최고 기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비가 오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온을 계산했을 때 그것의 장기간의 추세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가을철과 봄철을 비롯해 주로 추운 시기를 통해 기온이 많이 상승합니다” “기온이 얼마나 상승했느냐도 계절마다 틀려요. 겨울철, 가을철, 봄철 이 순서로 온난화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주의 기후는 어떻게 변했나.

“선조들의 주거지가 지금의 읍담인 묵관아에 중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중심이 이도동인 시청으로 옮겨와 있고 향후에는 아라동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처음엔 해안지역에 아열대 기후가 나타났는데 그 물리적 공간이 점점 중산간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21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여름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기간이 2

~3달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에너지 사용이 급증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에너지 사용에서 에너지 피크(최고점)를 측정하는데 그 영향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제주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결정돼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주 지역이 향후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시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대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제주도를 보면서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기후변화 발전에 중요한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과학적 대의제를 대중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접근하면 조금이나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대중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통로는 언론이예요. 그런데 언론이 객관적인 과학 사실이 아니라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옳지 않아요. 90년대에는 언론들이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고 과거에는 엘리트, 라니냐 때문이라고 하고 지금은 전부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없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기후 변화 때문이다 하는 것은 틀릴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함부로 일반화하면 안된다는 말씀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의 양상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언론이 기사를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로서 지구온난화 이론이 완벽하다고 보는가.

“그건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very likely라는 표현을 쓰지 will be 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이론에 대해 동의하는 것뿐이지 5%의 의견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학자 중에 95명이 맞다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더 신뢰를 두겠죠. 과학자들은 항상 객관적이면서도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려 노력합니다. 95%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축적된 자료를 보면 온난화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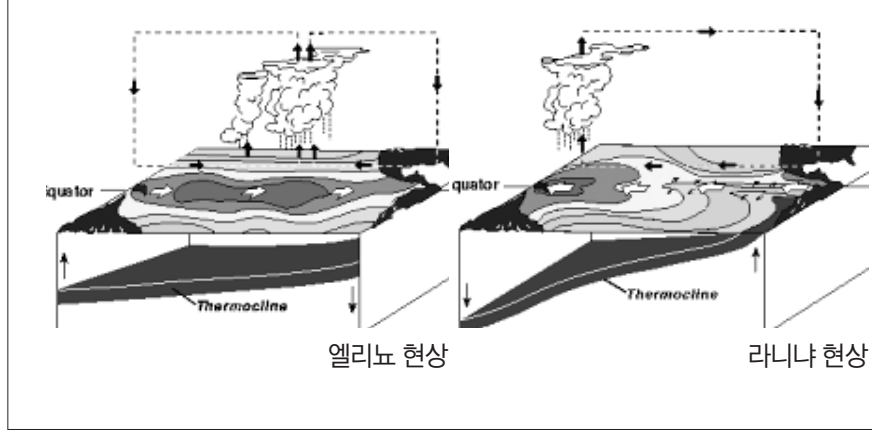
용어통 : 핵심 용어 정리

◇IPCC 보고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 기구(WMO)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최근에는 2009년부터 작성한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가 2014년 9월에 발표됐다. 평가보고서는 과학적 사실(The Physical Science Basis), 영향과 적응(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기후변화 저감(Mitigation of Climate Change) 등 3권으로 구성돼있다.

◇피드백(feedback) 피드백(되먹임, 되알림, 환류, 순환)은 어떤 일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 제어 원리이다. 증가된 출력을 더 증가시키는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과 증가된 출력을 감소시켜 다시 안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음의 피드백(negative feedback)으로 나눌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경우 영구동토의 붕괴로 인한 기온 상승은 양의 피드백, 피나투보 화산 폭발(1991)로 인한 기온 감소는 음의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구동토(永久凍土, Permafrost) 일년 내내 항상 얼어 있는 땅을 말한다. 북반구의 중·고위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겨울에는 0℃ 이하가 되지만 여름에는 0℃ 이상이 되어 동결된 땅이 녹는 경우를 계절동토라고 부른다. 영구동토는 지구 표면의 14% 정도에 해당된다. 영구동토의 두께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북부에는 200~300m에 이르는 곳도 있다. 러시아의 영구동토는 녹는 과정에서 툰드라의 유기물이 섞여 불안전연소 시 다량의 메탄(CH₄)이 대기 중으로 방출해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킨다.

◇엘니노(EI Nino)와 라니냐(La Nina) 엘니노 상태는 동태평양의 하층 대기 편동풍과 대류권계면 부근의 상층 대기 편서풍이 약화되는 열대 태평양의 대규모 바람 변화 현상이다. 이러한 상태는 적도 위커 순환이 약해졌음을 의미하며, 아주 강한 엘니노 때에는 이 위커 순환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라니냐 상태는 동태평양의 하층 대기 편동풍과 상층 대기 편서풍이 강화되는 열대 태평양의 대규모 바람 변화 현상이다. 이러한 상태는 적도 위커 순환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하기 위해 과도한 열이 깊은 바다로 이동했을 거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최근에 심해의 온도를 측정하여 확인한 결과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IPCC가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라고 한 1980년과 2000년 사이의 기온 상승은 대량의 자연적인 변화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기후변화 요소들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소들은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2003년 서유럽과 2010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혹서는 사형편서풍(蛇行 偏西風) 때문이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편서풍이 북쪽으로 향하는 곳에서는 혹서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기 때문이고, 편서풍이 남쪽으로 부는 곳에서는 북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한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혹서와 혹한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형 편서풍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기후변화의 설명이 아직 기초단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최근에 태양에서 불어오며 오로라를 만드는 태양풍이 지구의 표면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고속의 입자와 태양풍의 자기장이 지구의 높은 고도의 대기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반응의 결과 생긴 생생물이 북반구의 기후를 주관하는 북극진동과 같은 대규모의 대기 이동을 통해 지구의 표면에 다르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발생론적 요소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지적 토지사용의 변화는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물의 증산작용이 기온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작용은 단순히 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들은 식물에서 증발되는 수분은 구름의 양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낮은 품질의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그들

음은 또 다른 중요한 인류발생학적 요소이다. 그들음이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해 이동하다가 히말라야산맥에 도달하면 빙하의 표면을 검게 만들고 얼음이 녹게 된다. 그들음은 태양빛을 흡수하여 공기를 데워서 대기의 순환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계절풍의 패턴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영향은 아프리카나 캐나다 같은 먼 지역의 기온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새로운 형태의 위기관리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 과학은 끝났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재의 이론이 얼마나 협소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회 심리학의 결과로 만들어진 서양식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특징인 ‘터널을 통해 보기’의 단적 예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현대과학에 적합한 단순화와 이상화에 능하다. 반면에, 동양적 사고방식은 사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복잡한 실제 세계의 정책에 적합하다. 우리는 최근에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양과 동양의 사고를 결합한 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시스템 강화와 상황기반 접근법을 도입해 유럽에서 우세한 사전예방원칙과 미국에서 발전한 적응관리를 통합하였다. 이 접근법은 위기관리의 큰 그림을 보게 한다. 시스템강화는 인체의 회복력을 중요시하는 동양 의학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는 취약점을 줄이고, 회복력을 키워서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피하겠다는 생각은 박테리아와 같은 원인물질을 제거하여 질병을 고치는 서양의 의학과 유사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협약(FCCC)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농도를 무해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종종 잊혀지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각 나라와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말은 서양의 사고방식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족하다는 걸 말해준다. 정리=천지인 기사

>> 4·3 순례 기획

4·3사건, 그 역사의 아픔을 쓰다듬다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 제주 일대 순례

4·3의 참 의미에 대해 바로 알아

제주 최악의 비극인 4·3사건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So아라 총학생회는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그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대표적인 4·3사건 유적지 순례를 준비했다. 기자는 4·3 사건의 올바른 이해와 유적지를 직접 보고 느낀 생각들을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기획했다.<편집자주>

◇쉽게 풀여쓰는 4·3사건의 배경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 한민족은 자유를 되찾았다.

하지만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주둔했다. 한반도 내 정치 지도자들은 좌우로 이념이 갈라져 대립했다. 결국 광복 3년만에 남과 북 각자 단독정부가 수립돼 지금까지 분단돼 오고 있다.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탄을 발포한 정체는 다른 아닌 경찰이었다. 총격 사건으로 주민 6명이 숨졌으며 제주도내 민심은 극도로 악화됐다. 미군정은 합동조사반을 제주에 파견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진상 발표는 하지 않았다. 미군정 경무부장을 맡았던 조병옥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했다. 이는 4·3으로 가는 길목에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는 원인이 됐다.

◇4·3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군정은 3·1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도내 고위관리들을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임명했다. 미군정의 대대적인 탄압에 제주 청년들은 도의 혹은 해외로 도망갔다. 또한 일부 청년은 한라산의 동굴 등에 은신처를 마련했다.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많은 정당과 단체는 원만한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남조선도동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2·7사건’이다.

하지만 제주도내 좌익진영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돼 궤멸 상태에 빠졌다. 그 후 붙잡힌 청년들에 대한 가혹한 취조가 이뤄졌다. 결국 4월 3일 새벽 2시 남포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무자비한 살육으로 인한 비참한 희생

무장대는 5·10단선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투쟁을 전개했다. 도내 많은 지역의 투표소를 공격했다. 다수의 주민들은 무장대에 동조해 선거를 거부했다. 결국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는 투표수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다. 미군정은 재선거를 요구했으나 무기 연기됐다. 5·10선거의 거부로 인해 미군정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탄압을 시작했다. 5월 27일까지 불잡힌 입산자는 3126명이었고 6월 중순까지 6000여명이 잡혔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병력을 제주에 주둔시켰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초토화작전’이라고도 불린 학살은 1948년 10월 말부터 약 5개월 동안,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4·3사건의 희생자 수는 2만5000~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벌대는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해안마을로 강제 이주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선무공작에 따라 많은 피산자들이 귀순해왔다. 당시 체포돼 포로가 된 자를 합쳐 거의 1만여명에 달했다. 귀순자 일부는 석방됐으나 상당수는 군법회의에 심판을 받았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학살은 다시 시작됐다. 4·3사건 관련자들이 즉별처분되기 시작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사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살상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뤄졌다. 육지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천 명의 제주출신 형무소 재소자들이 죽어갔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개방될 때까지 희생은 계속됐다.

◇어린 울부짖음이 담겨 있는 ‘너븐송이’

유적지란 인식을 갖지 않고 너븐송이에 방문한다면 작은 언덕들이 밀집해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잔디밭과 구별이 안가는 언덕들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너븐송이는 대학살 사건 당시 인명 희생자가

장 많았던 유적 중 하나이다. 소나무 아래 들성등성 모여있는 돌무덤은 바로 애기무덤이다. 유적 곳곳 위치한 아이들의 돌무덤에서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일부 방문자들은 무덤 앞에 서서 가벼운 묵례를 했다. 양영길 시인이 작성한 ‘애기 돌무덤 앞에서’ 시가 담긴 비석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린 아이에게 끔찍한 비극을 안겨줘 용서를 빈다는 내용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적 내 산책로를 걷다보면 ‘순이 삼촌비’를 발견할 수 있다. ‘순이 삼촌’은 1978년에 발표된 현기영의 중편 소설이다. 제주 4·3사건 당시의 비참한 학살을 담고 있으며 4·3 사건을 최초로 다룬 문학작품이다. 작가가 당시 4·3사건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했으면 유적지에 비를 남겼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한 채 다음 유적지를 순례하러 자리를 옮겼다.

◇감시하기 위한 ‘선을 낙선동 성터’

다음 유적에 발을 들어 놓기 전, ‘성터’라는 이름을 보고 우람한 성벽을 생각했다. 그러나 직접 ‘낙선동 성터’를 보고 나서 말문이 막혔다. 성터는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성을 쌓았다고 생각했다.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희생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성당은 주민들과 무장대간의 연계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건설됐다. 이 사실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특히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희생됐기 때문에 여성과 노약자들이 노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성 내부에는 돌담을 쌓고 나무기둥을 세우며 나뭇가지를 얹은 지붕에 띠를 덮어 완성한 함바집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마치 수용소 같았다. 또한 경비망루와 돌을 쌓아 만든 화장실인 통시가 있었다. 통시는 그 당시 많은 비가 내리면 오물들이 넘치기 일쑤였으며 심한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 밖에 보조대기소, 경전지서 등이 있다. 고립된 제주 주민들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땀다.

◇잃어버린 마을 ‘곤울동’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제주시 화북동 ‘곤울동’ 역시 빼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다. 4·3 사건은 중산간 마을들을 주로 습격했거나 곤울동은 해안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토벌됐다. 올레 18코스를 따라 건물들의 터를 가렸다.

제주의 상징인 발담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 발담은 원래 옛 성이 있었던 자리라

북촌 너븐송이에서 사람들이 아기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 양말을 놓았다.(왼쪽) ‘너븐송이’ 4·3기념관에는사람들이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모아놓았다.(아래)



고 한다. 제주 특유의 기괴한 바위들을 보며 마을 안으로 진입했다. 마을 안에는 집과 집 사이를 나뚫던 돌담과 집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사라진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적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 근방 풍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다가 무차별적인 학살을 당한 주민들을 상상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돌담 근처에 피어있는 유채꽃들을 보며 이승에서 못 핀 목숨들을 추모했다.

◇용서하십시오. ‘제주 4·3 평화공원’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 4·3 평화공원’. 까마귀떼의 울음소리가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 했다. 평화 공원 중앙에는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위령탑이 건재해 있다. 탑은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신기한 건축물에 감탄을 했으나 역시 비극을 가르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위령탑 뒤

에 어린 남녀·청소년 남녀·어린 아이 등 총 5개 수의를 도상화한 ‘귀천’이 위치해 있다. 실제 4·3사건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희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꼭대기에는 추모를 하는 추모송화광장이 보이며 뒤편에는 희생자들의 신위를 배치한 위패봉안소가 있다. 코를 찌르는 향내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가벼운 묵례로 추모를 하고 기념관에 진입했다.

기념관은 총 1관에서 6관, 다량위 특별전 시관, 영상관 등 총 8개의 장소로 분류돼 있었다. 또한 기념관 내 곳곳 4·3아트워크 작품들이 과거 제주의 비극을 상기시켜줬다.

1관에서는 제주 4·3 사건의 역사를 알아가는 터널이 만들어져 있다. 실제로 희생자들의 최고 피신처는 동굴이었다고 한다. 토벌대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주민들을 상상하며 터널을 지났다. 2관에서는 4·3사건의 원인이 된 3·1 총격 사건을 전시하고 있다. 3관에서는 4·3 사건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민이 아니기에, 4·3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4관에서는 학살로 인

한 비참한 제주를 나타내고 있으며 5관은 그에 대한 후유증과 진상규명 운동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6관에서는 4·3의 상처를 보여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쪽지들이 벽에 걸려 있다.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일부 쪽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억울한 영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기념관을 서둘러 나왔다.

◇순례를 끝내며

기념관 중간에 위치한 특별전시관과 영상관을 보며 4·3사건을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번 유적 순례를 통해 제주 최악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좀 더 공부해서 갔더라면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시야로 봤을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토벌대에 맞서 싸운 용감한 주민들, 비명을 지르며 살상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주민들, 이들 모두의 공통된 사안은 끔찍한 희생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희생자들의 비석에 하얀색 조화를 두며 기도를 마쳤다.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 명복을 빈다. 백승규 기자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 꿈을 찾아가길 바라요

아라 초대석 <14>핸드메이드 브랜드 김지영 ‘모제이’ 대표

성산을 삼달리 어느 조그마한 집 한 칸에서 제주를 그려내는 사람이 있다. 한자코 자신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핸드메이드 브랜드 ‘모제이’ 대표 김지영씨를 만났다.

◇modern jeju life (모제이)를 꿈꾸다

“지금이 30대 후반인데 30대 초반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대단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뭘 대단히 한 것은 아닌데 바쁘지만 했고 여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 끝에 내려온 제주도. 그녀의 새로운 삶의 첫발이 이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마주치게 된 색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정석대로 살아왔던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충격을 가져다 줬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곳에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그녀는 풍경이 좋은 한적한 시골, 삼달리에서의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 숨겨왔던 작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서 말이다.

◇파란만장한 그녀의 지난날

일본 문화복장학원 스타일리스트과를 졸업한 부산소녀. 부산소녀는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을까.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대학을 가



핸드메이드 브랜드 ‘모제이’ 대표 김지영씨

고 싶다가나 특별한 꿈이 없었어요. 이전부터 성적이 맞춰서 가야하는 대학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부산에 있는 외대의 일본어학과에 진학하고서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대학을 나와 기업에 들어가고 연봉은 얼마 받는’ 그런 생활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고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일본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일본 생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무작정 찾아 나선 일본에서 그녀는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찾게 됐다.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언어를 배우는 것 외에도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 전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일본에서 문화복장학원이 유명하다고 해 그 곳에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이 좋게도 붙었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옷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스타일링을 위한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는 점이 좋아 디자인과가 아닌 스타일리스트과를 가게 된 그녀. 졸업 후 부분 꿈을 안고 돌아온 한국에서 그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됐다. 당시 스타일리스트가 단순히 학원을 나와 싼 가격에 이것저것 일을 하는 소모성인 직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무역 회사와 의류회사를 전전하게 됐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졌기에 디자이너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겼다. 그렇게 그녀는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재밌는 것을 찾다가 후천적으로 꿈이 생겼어요. 지금도 제가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만드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주의 모습을 그려낸 핸드메이드

“8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늘 이미지 트레이닝만 해왔기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 거창한 것을 하긴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처음 시작은 미싱으로 실용적인 것부터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방부터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제 스타일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해 점점



김지영씨가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들. 실크 스카프(왼쪽)과 모직 패치워크 파우치(오른쪽).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시골에 내려와 제일 많이 보게 된 돌이라든지 꽃, 굴나무, 동물 등이 모두 그녀의 소재가 됐다. 색을 위주로 이미지로 풀어내 여러 가지 색상, 무늬, 크기의 천 조각을 꿰매 붙여 만들어진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가 본 기억이나 색들의 짜깁기다.

그녀의 어린 삶이 마냥 쉽지 않은 않았다. 아직까지 핸드메이드에 대한 가치가 높지 않아 어려움도 많고 그녀의 노력과 시간을 몰라줄 때가 많아 아쉽다고 한다.

“시장에서 보는 가치가 만드는 입장에서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핸드메이드를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제 손을 거쳐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것이잖아요. 뭔가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드는 것에는 저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것 같아 그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 없어요.”

해맑게 웃으며 핸드메이드의 매력을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행복에 빠진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았다.

◇꿈을 향해 달려온 부산소녀

대학 중퇴에서 일본 유학, 회사생활, 제주의 전원생활까지 그녀의 지난 삶은 파란만장하기까지 하다. 흔히 우리나라는 경력 위

주의 사회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어떤 회사로의 첫발이 나중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기에 더더욱 그 첫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 더 독특하게 다가온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여러 일을 해보고 싶는데 외부에서 보면 이 우물도 파고 저 우물도 파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사실은 내 안의 갈등이고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도 학생들이 사회에서 정해져 있는, 대학을 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는 등의 정형화된 삶이 아닌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삶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학생들이 고민하고 꿈을 찾아가길 바라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녀가 품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피카소처럼 왕성하게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만드는 것에 열중하고 싶어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고민한 것에 비해 너무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일에 열중하고 싶어요.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실용적인 것 말고도 패브릭으로 조형물 작업을 해보고도 싶어요.”

그렇게 오늘날 그녀의 손에서 그녀의 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작은 천들이 그녀의 손에서 모아져 하나의 작품이 되듯이 그녀의 작은 꿈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 부찬우 기자

교수시론



정 동 기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

“
높아져 가는
종자의 중요성...
제주가 종자산업의
중심지가 돼야

”

뉴스나 방송에서 불편한 뉴스들만 가득한 요즘 오렌만에 듣기 좋은 뉴스가 들려왔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 회사를 출범한다는 소식이다.

종자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g에 65만원하는 흑색토마토 종자는 이미 금값보다 비싼 존재가 됐다. 최근에는 데미네이션 씨드라는 개념이 도입된 종자가 다국적 종자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종자를 키워 다시 씨앗을 받았을 때 그 씨앗이 받아하지 않도록 특수한 조작을 한 종자로 계속해서 종자를 재구매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종자 자급율은 대표적인 과일의 경우 사과는 20%, 배는 15%로 이미 우리의 식탁은 외국 종자에 예측된 상태라 볼 수 있다. 만시지탄으로 3년전 정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국가 종자 육성 프로젝트를 다부처가 합심해 2년째 수행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제주의 현실이다.

제주는 농업인구 비중이 20% 가까이 되고 기후분포가 아열대부터 온대까지 넓게 분포돼 지역적 장점이 많은 지역이다. 제주가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갈굴 부문도 자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종축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주장하기 부끄러울 지경의 자급율인 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가 성공한 씨감자 산업은 최근 방송프로그램의 강원도 농민 인터뷰에서 제주의 가능성을 엿봤다. 감자하면 강원도였는데 이제는 제주 감

자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특히, 씨감자 하면 제주가 강원도와 나란히 어깨를 겨누다고 한다. 제주의 발작물 위주의 농업토양과 환경이 우리나라 자급 가능한 작물의 채종장 및 육종장으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족의 경우에도 본 필자가 전공이므로 한마디 거들면, 제주는 경제동물인 소, 돼지, 닭의 고육 가족을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지역이다.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오랜 기간 고육 가족을 수집하고 계통을 조성해 근친계통을 유지한 예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잠재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제주가 종자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1차 산업의 미래는 어둡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가 종자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첫째, 지도자의 미래를 보는 안목이다. 정말로 제주를 친환경농업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경작지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자 생산형 산업구조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가 육성프로그램을 특성화 시켜 대학과 연계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씨감자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고도별 기온에 맞는 발작물 채종포와 육종포를 집중육성에 무관중자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정책참여 능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 장기적으로 종자산업의 토대를 마련한다. 종자가 돈이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몇 년 전 대정의 딸기 종묘 생산 능력을 견학

한적 있는데 이 농가는 딸기 종묘만 팔아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세 번째는 제주의 집중육성 종자를 위한 품목별 장인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파급 확산의 전문가로 활용하는 인재 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남원의 한 갈굴 전문가는 항상 혁신하는 농법을 이용하여 한해 85%의 불로초를 생산한다고 하니 이것이 제주의 미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종축의 경우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가족을 위주로 장기 육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량목표를 수립하라는 주문이다. 예로, 흑우의 경우 순종의 경우 산업화가 불가능한 적은 수수가 사육되고 있다. 일본의 화우 개량 성공 사례처럼 흑우도 정밀한 교잡우 프로그램을 수립해 맛은 유지하면서 대량 공급이 가능해 산업화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화 정책도 병행해야 종자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는 외래종이 도입돼도 제주만의 맛이 담긴 작물과 가족이 생산되는 신비의 지역이다. 제주만의 그 무엇이 외래종이 새롭게 제주형 종자로 태어나는 환골탈태의 지역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대학의 젊은 친구들도 일반 직장 생활도 좋지만 이런 보석을 캐서 고소득을 꿈꾸는 광부의 길도 한번 도전해 볼 만 하지 않을까 조언해 본다. 만일, 여러분이 도전의 의사가 있으면 대학은 여러분에게 보석을 캐ل 공객이를 만들어 줄 준비가 충분하게 돼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제주의 새로운 가치 창출

동문칼럼



고 희 철
화학과 05학번
제주조릿대 RIS사업
총괄팀장

제주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분야에서 3개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런 국제적 브랜드 가치로 인해 현재 제주는 한해 1,200만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되고 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브랜드 등 생물권보전지역은 유일하게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이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생물권 사업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기능, 발전기능, 지원기능의 3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세계적인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뮌 지역은 이농과 고령화로 지역사회가 쇠퇴하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특산품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2~5배에 이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지역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했다. 오스트리아 그로세스 지역에서도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의 환경보전과 함께 그로세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는 등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해 지역의 고부가가치를 높인 성공적인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두 지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지정을 통한 관광산업에서 벗어나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적극 활용해 지역의 주요산업과 융합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외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관광산업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산업, 문화 간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4년 제주도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마크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도했고 제주조릿대, 표고버섯, 유기농녹차, 산양삼, 돈육 등에 처음으로 이 브랜드 마크를 적용하여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조릿대는 생물권보전지역 인증품목으로 자생하는 제주만의 고유한 식물자원으로 예로부터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에 의하면 암, 당뇨, 고혈압 등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약재로 처방돼 왔다. 현재 제주조릿대를 활용해 제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제주조릿대 RIS사업단에서는 제주조릿대 추출물을 활용,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대해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인체시험을 진행하는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조릿대에 대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오고 있다. 제주조릿대는 이런 청정성과 기능성을 기반으로 제주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품, 향장품, 생활용품, 주류 등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브랜드 연계 및 관광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제주조릿대가 제주의 성장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대 및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제주조릿대가 제주밖에 없는 우수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자원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속적 홍보가 수반돼야만 한다. 향후 제주는 FTA 등으로 인해 1차산업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제주조릿대처럼 제주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유네스코 브랜드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이를 제주의 관광산업과 연계해 제주만의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n.ac.kr

기자수첩



김 해 건
문화부 기자

“
의지없는 정부
외면하는 우리
사라지는 기억

”

개인적으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거야’ 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보통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롭게 의문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1년, 시간은 여전히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 너무 성급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아직 시간이 덜 흐른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확실한건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유가족들과 유가족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언제까지 할거냐?’, ‘이제 그만해라’ 고 말한다. 심지어 자정 보수를 주장하는 몇몇 단체들은 그들에게 ‘종북아니냐?’는 발언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하겠다’,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만들겠다’, ‘유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6·4지방선거가 끝나기 전만해도 이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미동도 않는다. 내가 보기에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문제가 정부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은 ‘그들을 기억하자’ 라는 노란리본을 달며 그들의 편이 돼주고 힘이 실어주었다. 전국적으로 세월호 집회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라’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고 전국에서 주장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아니 시간과 사람들만 흘러보냈다. 유가족을 지지해주었던 시민과 학생들은 점차 사라졌다. 노란리본을 달고 ‘기억하자 4·16’, ‘잊지말자 세월호’ 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학생, 직장인으로 돌아갔다.

나 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활동을 했다. 그중 ‘제주노란우산’이라는 단체에 가입했다. ‘제주노란우산’은 세월호사건을 향한 제주 청년들이 내쉬는 숨들의 공간이었다. 당시 이 단체에 가입한 나는 노란우산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몇몇 학생들과 함께 제주대에서 시청까지 걸으며 ‘잊지말자 세월호’ 를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활동은 저조해졌고 결국 중지됐다. 나 또한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

갔다. 이제는 그들이 귀찮아 진 것일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내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묻고 싶다. ‘관심은 일시적일 것이다’, ‘결국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관심이 무관심으로, 지지가 비난으로 바뀌는 현 사회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한순간만 기억하는 세상이 너무나도 차가워 보였다. 아직 바다에 우리가 찾지 못한 실종자가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일찍 포기해버렸고 유가족들의 손을 놔버렸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조사와 세월호 인양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제 곧 4월 16일이다. 그리고 이날은 세월호 사건 1주년이다.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천갈래만갈래로 찢어져 왔다.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의 관심은 저조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있다.



고 윤 지
정치외교학과 2

제주청년으로서의 정체성 지키기

요즘 긴장감을 가지면서 듣는 수업이 있다. 이 수업은 책 한권을 일주일 만에 읽고 논평을 해야하는데 논평을 제대로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최근에 읽은 책은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와 ‘오리엔탈리즘’이다.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는 지배와 폭력으로 이루어진 국가와는 이별해야 한다는 탈근대적 논리가 담겨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고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수단인면서 서구인들의 편견과 왜곡이 빚어낸 허상이다. 공통적으로 이 두 책에서는 권력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한 논리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지배자가 지배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까.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생각났다. 서구사회와 거대 자본이 인도북부의 한 지역인 라다크를 지배하고 파괴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그 책에서는 서구의 생활방식과 거대자본을 벗어던지고 라다크만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회귀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 과정이 서술된다.

결국, 나와 같은 피지배자 청년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제주도, 더 넓게 세계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바로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제주 청년인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단체인

‘글로벌이너피스’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유엔과 관련한 국제행사를 비롯해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글로벌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제주의 고유 가치 지키기 행사의 일종으로 작년에는 NGO의 모든 인력이 제주 옹기굴제에 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런 해에는 매년 2월 21로 지정돼 있는 국제문화어의 날을 기리기 위해 모국어와 언어,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현재 사라져가는 언어들에 대한 내용을 판별로 제작해 시청 어울림마당과 한라도서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라져가는 언어들 중에는 제주어도 포함돼 있다. 제주어의 가치를 뒤돌아보고 지키자는 의미에서 제주어로 적어 나무에 매다는 행사도 진행했다. 청년들이 제주와 세계와의 연결성을 놓치지 않고 제주의 지역가치를 지키며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의 중요성과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을 비롯해 제주와 세계를 알아가는 기반이 된다. 결국 피지배자 청년이 정체성을 지키면 살아가는 하나의 예시로 제시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오래된 미래에 제시된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대 자본과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SNS중독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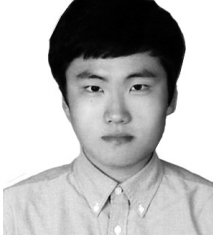
대략 5년 전에 아마 스마트폰이 등장한 시기와 맞물려 SNS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인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으나 마치 매일이 등장하기 전의 편지처럼 영향력이 미미했다.

21세기 직전이었을까. 반년마다 새롭게 출시될 만큼 스마트폰의 발전 속도는 빨랐다. 우리가 쓰던 일반 버튼형 2G 휴대폰과의 현격한 기능 차이 때문에 확산 또한 매우 빨랐다. 어느새 기존 휴대폰으로는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게 됐고 남녀노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일반화에 얽혀 SNS의 힘도 어마어마해졌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사진을 찍고 코멘트를 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평소에도 볼지 못한 사람들의 관심이 ‘좋아요’에 닿게 전달된다. 또한 자신들의 근황을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훑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SNS가 등장하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다양해졌다. 최근 가장 거대한 SNS를 꼽으려면 단연 인스타그램일 것이다. 전에 있던 것들보다 간편하며 단순하고 제약이 없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받아 볼 수도 있으며 그들과 소통도 가능하다. 해시태그(#)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과도 교류가 쉽게 가능하며 인친(인스타그램 친구)라는 용어도 생겼다. 나를 받아보는 사람들(팔로워)의 수가 많을수록 뭔가 대단해 보이고 내가 받아보는 사람들(팔로워)의 수는 최

소화해야 했다. 팔로워의 수를 높이기 위해 나를 노출하고 또 노출하는데 사실 SNS의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무분별한 노출을 통한 인맥 형성은 SNS 내에서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며 그 속에 새로운 나를 형성한다.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꽤나 팬클럽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평소엔 받을 수 없었던 관심들이 쏟아진다.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간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나는 그대로부터 판타지는 높아지고 점점 격차가 심해진다. 높아진 자존감에 비해 자신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현실보다 SNS에서의 삶을 더 중시하게 된다. SNS 덕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SNS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즉 SNS를 통한 여러 문제의 원인은 결국 판타지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한껏 포장된 나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나를 포장하는 데 힘쓸 것이 아닌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 노력해야 한다. 그레이란 현실의 내가 성장하고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 SNS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잃을 순 없다. SNS 속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의 나의 모습을 자각해야만 한다. SNS도 결국 우리가 사용할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기에 SNS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 영리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김 동 현
전산통계학과 3

올바른 소비습관을 기르자

1학기가 개강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4월이 됐다. 졸업식, 학과MT 등 각종 행사들로 뒤덮였던 3월, 빠르게 지나간 그 3월 한 달동안, 여러분이 한 잔이라도 마셔야 하고, 사야할 전공서적, 교양 서적도 많고 읽고 싶은 책도 사고 그리고 무슨 행사들은 또 어떻게냐 많은지, 3월에 한 행사를 만해도 두 손이 모자랄 정도다. 그 행사들 다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여기서거기 사고 싶은 것들, 사야 하는 것들은 많은데 용돈은 정해져 있기에 부족한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어찌 돈은 모이지 않고 그게 조금이 됐든, 월급이 됐든 일단 들어오는 큰 돈에 아끼려는 생각은 없고 씹씹이만 더 커져버린 경험들을 다들 갖

고 있을 것이다.

‘돈 쓸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울고 있지만 말고, 합리적인 소비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가계부를 작성하자. 흔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체계적 소비를 위해 꼭 필요한 기본 단계이다. 당신이 등·하교를 하는 점심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전공 서적을 사든 당신은 당신이 돈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기억하는가.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돈 쓸 일이 많다면 돈이 어디에 돈을 쓴지도 모르는 당신. 당신이 돈을 아끼지 못하고 쉽게 쓰는 가장 큰 이유이다. 가계부를 쓴다면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장을 나눠보자. 용돈 혹은 월급을 받으면 하나의 통장에 넣고는 경우가 많다. 처음 돈을 받으면 돈이 많아 보이기에 과소비할 할 우려가 있다. 예를들어 이번 달에 50만원을 받았다면 쓸 돈을 30만원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를 다른 통장에 넣어 놓는다면 통장의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당신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 돈을 조금 더 아껴써야 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대학생활에 제대로 된 소비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직장인이 되어서도 쓸 데 없는 낭비가 계속 되어 저축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소비습관을 들여 앞으로는 낭비하지 않는 당신, 저축하는 당신이 되어 남들보다 여유있고 알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 기 중
경영학과 2



» 학생들과의 대화

세계 각국의 만우절

〈 미국·중국·일본 학생들의 Story 〉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다. 학교 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귀여운 장난을 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날이다. 친구들을 놀리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만우절은 본래 서양에서 내려온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자는 한국뿐만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농담으로 주변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 알고 싶어 취재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친근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현지학생들 혹은 오래 거주했던 학생을 만났다.

〈편집자주〉

◇남녀노소 모두가 장난치는 미국의 “April Fool’s Day!”

“April Fool’s Day!”, 미국에서 만우절 날 친구 혹은 가족에게 농담을 하고 나서 외치는 말이다. 가볍거나 무거운 장난에 놀아난 사람들도 상대방의 깜짝한 농담에 피식 웃곤 한다고 알려진다. 실제로 미국에서 만우절에 어떤 농담들이 오가는지 자세하게 알기 위해 국제교류본부를 찾았다. 본부는 뉴욕에서 5월부터 11년간 거주하다 4년 전 제주에 내려온 김한정 (영어영문학과 2)씨를 소개시켜줬다.

“사람들 말을 너무 잘 믿는 성격이라서 학창시절 끊임없는 장난을 당했어요. 제게 만우절은 비극이요 비극!” 그녀가 푹신한 쇼파에 앉자마자 말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스카티데이프처럼 겹을 뽑아서 먹는 도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쥐뿔을 설치해 손가락에서 피가 난적도 있었어요”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표정은 즐거워보였다.

가지각색의 마술 도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특히 만우절 때 인기를 더욱 실감케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1년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그 날 다 푸는 친구도 봤다고 덧붙였다. 특히 4월 1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급게 귀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만우절은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남녀노소 물론하고 장난기가 극심한 사람들이 주변인들을 즐겁게 해줘요. 그렇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은 어느 학생이 창가에 자신의 신발을 올려놓고 아

래 운동장에 누워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은 만우절 장난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온 선생님은 아주 놀라셨죠” 그녀는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미소를 머금으며 계속 말했다. “제가 짝사랑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만우절을 기념해 오 늘부로 교사를 그만둔다고 말하셨죠. 너무 우울했지만 나중에 선생님께서 ‘April Fool’s Day!’ 라고 소리쳤을 때 화가 매우났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라 싶었죠”

미국의 만우절이 한국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른들도 함께 한다는 점이다.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들의 스테이플러에 심을 다 때놓거나 복사기에 선정적인 사진을 복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나이가 지긋한 어른신들도 손주·손녀에게 귀여운 장난을 친다고 그녀는 말했다.

“추수감사절(Thank’s Giving Day)나 크리스마스(Christmas)처럼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정말 재미있는 날이에요. 사실 오늘 친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색다른 장난을 안겨주고자 해요. 비밀입니다”

◇자칫하면 예의 없는 중국의 만우절

고등학교 시절, 한류 문화에 빠져 제주 유학을 결심한 장 유 (국어국문학과 2)씨는 한국에 비해 중국의 만우절은 좀 다르다고 말했다. 절강월수 외국어대학교에 재학하던 그녀는 교한 학생이다. 한국의 만우절을 몹시 궁금해 하는 눈치를 보였다. 한국의 만우절 문화를 설명했더니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만우절엔 정확히 어린 아이에서 한절 때 장난을 치도록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대부분 어른들은 장난들이 버릇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제가 농담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전통적인 서양문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만우절을 겪었을 때 매우 놀랐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만우절에 장난을 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녀는 한참동안 생각하더니 학창시절 기억을 더듬으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때 활발한 성격이기에 자주 신발끈이 풀려 있었어요. 그런데 만우절 날 신발끈이 묶여있음에도 친구들이 계속 끈 매듭을 지으라고 한 기억이 나요. 한번 먹었다는 생각에

저도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날 탓으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하”

장난을 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항상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미가 없고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녀는 농담 강도가 강해지면 친구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번은 친구가 과자 속 달콤한 크림 대신 치약을 넣어 주변 사람에게 먹인 장면을 봤어요. 최악의 과자를 맛본 친구는 화를 냈으나 다행히 사이가 잘 풀려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매우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심한 장난이었거든요”

아직 한국의 만우절을 겪어보지 못한 그녀는 몹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한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흥미로웠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거절 받았다면 ‘만우절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친한 한국 학생들이 나에게 재밌는 장난을 쳤으면 좋겠어요”

◇감성적인 일본의 만우절

도쿄의 하치오지시에 위치한 소카대학교에서 온 사치코 엘리 (경영학과 2)씨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재학 시절, 가족과 함께 한 서울여행이 한국의 첫 발걸음이었다. 당시 서대문형무소를 관광하면서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몸소 체험했다. 그녀는

한국에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프로필을 소개한 후 일본의 만우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본은 학기가 4월 2일부터 시작해요. 즉, 만우절은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는 주로 전화상으로 장난을 많이 쳐요. 3월 31일 11시 40분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많은 얘기를 주고받다보면 20분은 순식간에 흐르죠. 12시가 지나면 만우절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거짓말을 치기 시작해요. 순진한 친구들은 감쪽같이 속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녀는 신나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했던 농담을 자세히 말해주기 시작했다. “한번은 제가 임원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순수한 제 친구는 ‘어디가 아파? 몸은 괜찮아? 꼭 쉬어’라며 진심어린 걱정을 해주었죠. 저는 그에 그치지 않고 날이 밝으면 병문안에 꼭 오라고 했어요. 친구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아침이 되면 문자가 와요. ‘어디 병원에 입원했어?’ 라고요. 그 때 제가 말하죠. ‘만우절이야!’ 당시 그 친구의 표정을 봤으면 했어도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그녀는 만우절 장난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밝혔다. 어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었는데 만우절이라고 농담을 했다고 말했다. 근데 그 여학생은 정말 남학생을 마음에 뒤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저와 되게 친밀한 사이였어요. 너무 많이 울었죠. 친구에게 전화로 위로를 계속했죠. 그래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만우절이야, 사치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방 먹었죠. 그 때도 사실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이어 한국 만우절 문화를 물었다.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의 만우절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는 어른들한테는 장난을 못 쳐요. 무서우니까요. 근데 한국은 만우절 농담에 관대하다고 들어요. 너무 기대돼요” 백승규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육성기록을 담은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발간식이 제주 북문스트가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열렸다.

작가, 활동가 그리고 유가족,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세월호의 종착지 제주에 왔을까. <편집자주>

◇너무나 평범해서 더 슬픈

사회자가 지성씨와 장현씨는 어떤 아이였는지 물었다.

서로 답하기를 꺼려하는데 지성 엄마가 힘겹게 말을 뱉었다. “지성씨가 수학여행 가기 전에 장기자랑에서 춤 출을 연습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언니랑 춤쳤어요. 시끄러워도 그 모습 보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노래 소리가 똑 끊겼어요. 그 어여쁜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지성 아빠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법에 관해 과학적 사실에 대해 물어보는데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답한다. 그는 “내가 전문가라면 여러분들처럼 세금 내는 전문가이고, 아내는 밥짓는 전문가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현재 수습되지 않은 9명의 실종자가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 것이다. 그런데 9명 중 3명이 제주도로 차마 돌아오지 못한 도민이다. 이에 장현 엄마는 안산시민처럼 제주도민도 적극적으로 인양을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하나 경악스러운 사실이 있다. 사고 당시 딱 하루 일하고 희생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친구들이랑 돈을 벌기 위해 승선했는데 구조된 친구 중 2명은 사고 이후 군입대했다.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지는지 방증하는 사례이다.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돼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아는데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배·보상 문제가 해결된 줄 아는데요. 10원 한 장 못 받았 습니다”

작년 11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에는 발도 담그지 않았다. 박진 활동가는 “오늘(3월 27일)

시행령의 정부안을 법제처가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여당 소속인 사무국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상임위와 비상임위가 제출한 직책은 강그리 무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이 확정돼야 본격적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대로는 6월은커녕 7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고 1년이 거의 다돼가는 3월 26에 있었던 조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조사 제목을 정했다고 한다. 자리에 참석해 영상을 찍던 지성 아빠는 취재 온 기자들이 “저것들 싸워야 뉴스 내보낼 텐데”라고 말한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결국 별 탈 없이 끝난 회의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당시 연달은 오보와 윤리 문제로 ‘기레기’라고 비난받던 언론도 1년 전과 변함없었다.

◇끝나지 않는 싸움

“세월호, 영해서 영하게 마썸”제주도가 고향인 지성 아빠가 특유의 방언으로 호소했다. 박진 활동가는 “특별법 제정이 100미터 달리기였다면, 이제는 마라톤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할 때이다.

전지민 기자



故 문지성 양의 아버지 문중택씨가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성 양의 생전 모습이 스르린 위로 보인다.



“펜은 칼보다 낫다”
제주대신문 63기 수습기자 모집

입사혜택



1. A급장학금&업무보조장학금 지원
2. 매월 취재수수료 및 원고료 지급
3. 언론사에서 편집교육 및 취재교육 실시
4.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

- 모집대상 :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 및 2학년 재학생
- 모집기간 : 4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ac.kr) 커뮤니티)자유게시판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려받아 출력 및 작성후 신문사에 제출
- 기타서류 : 자기소개서
- 장 소 : 본관 취업전략본부건물 3층 제주대신문
- 문 의 : 754-2277~9(제주대신문)

010-9785-5221(백승규 편집국장)